



■ 아시안게임 D-3

‘40억 아시아인의 대축제’ 제15회 하계아시안게임이 12월1일 카타르 도하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보름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1974년 테헤란아시안게임 이후 32년 만에 중동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아시아 45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1만500명이 참가해 39개 종목에서 모두 424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축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은 체스와 카바디를 제외한 37개 종목에 선수단 832명을 파견, 70개를 웃도는 금메달을 획득해 3회 연속 종합 2위를 지킨다는 목표로 세웠다.

한국 “3회 연속 2위 지킨다”

일본 육상·수영 등 강세...한국에 강력 도전

중국 7회 연속 우승 확실히...북한 5위 노려

세계 최강 수준인 중국이 최소 150개 이상의 금메달을 휩쓸어 7회 연속 종합우승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은 2위 자리를 놓고 일본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 한다. 한국보다 많은 91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일본은 육상과 수영 등 금메달이 대거 걸려 있는 기초종목에서 강세를 보여 선봉리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대회에서 중국의 지나친 독주도 견제해야 한다. 북한도 18개 종목에 250여명을 내보내 5

위 탈환에 나선다. 1998년 방콕대회에서 8위, 2002년 부산대회에서 9위로 부진했던 북한은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도하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DAGOC)는 걸프 연안국에서 처음 열리는 스포츠축제를 맞이해 화려한 개최식을 준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시안게임 사상 역대 최고액인 28억 달러를 투자한 DAGOC은 개최식이 열리는 칼리파스타디움에 60m 높이의 대형 성화대와 5만여 석 규모의 좌석을 새 단장했고 경기장

지붕 조명공까지 완료했다. 또 개막행사에는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60·스페인)와 홍콩 인기배우 겸 가수 재키 칭(45) 등 톱스타들을 초청해 풍성한 볼거리도 만들었다. 아시안게임을 밝혀 줄 성화는 지난 10월9일 DAGOC 조직위원장인 세이크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 후계자가 직접 채화한 뒤 인도, 한국, 필리핀, 일본, 중국, 마카오,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바레인 등 55일 동안 15개국을 돌아 25일 알 사탈 항구에 귀환했다. 역대 최장거리인 5만km에 걸쳐 아시아대륙을 일주한 성화가 1일 칼리파스타디움 대형 성화대에서 화려한 불꽃을 피우게 되면 아시아의 젊은이들은 보름간의 뜨거운 열전이 시작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선수촌 첫 입촌식

제15회 아시안게임 선수촌내 첫 입촌식이 열린 27일 오후(한국시간) 도하 선수촌 앞 국기광장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안게임 마스코트



강한 생명력 지닌 중동산 영양 ‘오리’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로 선정된 ‘오리(Ory)’는 오리스(Oryx)의 애칭이다. 오리스는 아프리카와 중동 산 영양으로 길고 뾰족한 뿔과 흑백이 조화된 얼굴이 고결한 자태를 이룬 것으로 유명한 동물이다. 한여름 낮 최고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사막지대에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살아가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오리’는 전념(commitment) 열의(enthusiasm) 참여(participation) 존중(respect) 평화(peace) 즐거움(fun)의 정신을 상징한다.



“전훈 성과 만족... 금메달 우리 것”

2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 핼 베어백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우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도하로 건너 온 베어백 감독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왔다. 전지훈련 성과가 좋은 만큼 최선을 다해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다짐했다. 축구대표팀은 지난 15일 이란과 2006 아시안컵축구 예선 최종전 원정경기를 마친 뒤 두바이로 이동해 열흘 가량 중동 기후 및 시차 적응을 위한 전지훈련을 해왔다.

■ 베어백 감독 우승 자신감

특히 지난 23일 UAE 대표팀과 평가전에서 주전 선수가 많이 빠진 가운데 2-0 완승을 거둬 ‘금빛 희망’을 부풀렸다. 이 때문인지 부임 이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강한 비판을 받아왔던 베어백 감독은 입국장을 나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취재진에게 밝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베어백 감독은 전훈 성과를 묻는 질문에 “선수들이 높은 정신력으로 열심히 해 주

우 만족스런 성과를 거뒀다. 선수단 분위기도 좋고 단결도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선수단 구성이 아직 덜 됐다’는 질문에는 “K-리그 챔피언결정전을 치른 삼남과 수원 선수들이 합류해 쥘 상당히 기쁘다. 다만 러시아 리그 제니트에서 뛰고 있는 김동진과 이호가 28일 도하로 올 예정인데 첫 경기를 펼 수 없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선수들 컨디션에 대해서는 “다 좋는데 김두현이 챔피언결정전에서 무리를 해 오른쪽 무릎이 안 좋은 상태다. 큰 부상은 아니고 며칠 있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구 3연패 열쇠는 ‘右打’

30일 결승 같은 대만전 오른손 타자 활약 기대

‘오른손 타자가 아시안게임 3연패의 운명을 쥐고 있다’ 30일 ‘난적’ 대만과 결승과 닮은 풀리그 1차전을 치르는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대표팀이 오른손 타자들의 활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의 미국프로야구 출신 왼손 투수 귀홀츠(LA 다저스)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른손 타자의 한 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예치시엔 대만 감독은 26일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체 투수 중 가장 뛰어난 투수는 귀

홀츠이며 그 다음은 장치엔밍(요미우리)”라고 단언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병규(전 LG), 장성호(KIA), 이진영(SK) 등 정확한 타격과 장타력을 겸비한 좌타자가 많은 한국으로서는 귀홀츠의 존재가 더욱 두렵다. 한국의 우타자는 4번 주포 이대호(롯데)를 비롯해 ‘딜러 쿠바’ 박재홍(SK), 박진만(삼성), 조인성(LG), 이택근(현대), 정근우(SK) 등 6명이 라인업에 포진한다. 이용규(KIA)까지 포함한 4명의 좌타자는 모두 고타자다. 이용규, 장성호, 이병규가 각 타격 3.46위로 시즌을 마쳤다. 국내 야구에서 불을 맞는 능력과 해결사 본능이 모두 탁월한 선수들로 꼽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남북 나란히 도하 입성

핵심인으로 중단했던 체육회담을 6개월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남북한이 28일 제15회 하계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에 나란히 입성한다. 정현숙 단장이 이끄는 한국선수단 본진은 28일 오후 4시10분(이하 현지시간)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도하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올림픽공원 내 역도경기장에서 결단식을 갖고 종합 2위 수성을 다짐한 선수단은 공항에서 카타르 교민들의 영접을 받은 뒤 선수촌에 여장을 풀 계획이다. 본진이 도착함에 따라 한국은 29일 낮 12시30분 선수촌 앞 국기광장에서 파키스탄, 몽골과 함께 입촌식을 갖고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도하아시안게임 경기일정		11월																	
DOHA 2006		28	29	30	1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개회식					●														
육상																			
수영	김영																		
수영	다이빙																		
수영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수구																		
체조	체조(리듬)																		
체조	체조(트램플린)																		
축구		●	●	●															
유도																			
레슬링																			
농구																			
아구																			
소프트볼																			
탁구																			
태권도																			
배드민턴																			
배구	비치발리볼	●	●																
테니스																			
장구																			
양궁																			
핸드볼																			
역도																			
하키																			
펜싱																			
복싱																			
사이어클																			
사격																			
카약																			
승마																			
카누																			
요트																			
합인 3종 경기																			
볼링																			
우슈																			
골프																			
가라데																			
럭비																			
세탁타크로																			
카바디																			
체스																			
보드빌링																			
스쿼시																			
당구																			
폐회식																			●

● 현지시간 기준, 경기일정 향후 변경가능

